

제18장 미국 선교사 파송 산파역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엘레베이(Elebay) 집사가 자신의 출석교회인 워싱턴교회 장로회에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친애하는 장로님들, 지금은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동석기 선교사의 아들인 동충모 형제와 동석기 선교사의 제자인 이흥식 형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받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싸매주기에는 역부족(力不足)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선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에 워싱턴교회에서 파송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엘레베이 집사가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무시해 버리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던 워싱턴교회 장로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보내오는 그의 ‘선교사 파송 간청’ 편지로 인해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게 된다. 결국, 워싱턴교회는 장로회를 소집하여 ‘한국 선교사 파송 문제’를 상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실행(實行)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는 엘레베이 집사에게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다음으로는 미 육군보병학교에서 한국군 장교들을 위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석기 선교사의 얘기를 들어 본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어 당시 미국에 있는 유일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전도자이며 미국에서 한국에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인 동석기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김세복, 『교회사』, 55.]

“동 형제, 우리는 당신의 조국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당신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연락합니다. 이른 시일 내에 시간을 내서 워싱턴교회를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워싱턴교회 장로들의 연락을 받은 동석기 선교사는 펄듯이 기뻐하며 즉시 워싱턴교회로 달려가 장로들과 ‘한국 선교사 파송’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하였다. 이때 동석기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곡한 어조로 ‘선교사 파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워싱턴교회 장로들은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선교사를 파송할 경비가 없다.’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난색(難色)을 보였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 건을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동석기와 워싱턴교회 장로들 간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갔다.

“동석기: 장로님들, 지금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체계적인 선교를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이때를 생각하여 저는 그동안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저축하고 있었는데, 현재 4천 불이 제 통장에 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선교사 파송 경비로 보태려고 합니다. 부디 이 돈을 사용하셔서 빠른 시기에 선교사를 파송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김세복, 『교회사』, 55. 참조]

“장로들: 동 형제, 선교사는 적어도 두 가족은 파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송을 위한 경비는 약 2만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교사를 파송 후에 계속해서 선교비를 후원해 주지 못하므로 인해 곤란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가능하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것입니다. 그러니 힘이 들겠지만 ‘동 형제가 약 1만 불을 모금해 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세복, 『교회사』, 56. 참조]

동석기 선교사는 워싱턴교회 장로들의 얘기를 듣고 ‘반드시 모금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의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하였으며,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하였다. 이어 그는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미국의 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차례로 찾아갔다. 그는 간 곳마다 ‘한국 선교사 파송의 필요성’에 대하여 피땀 어린 호소를 쏟아냈다. 동석기의 열정적이고 간곡(懇曲)한 호소에 반응을 보인 미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앞다투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김세복, 『교회사』, 56.]

이렇게 노력한 결과 동석기 선교사는 ‘선교사 파송에 필요한 경비, 워싱턴교회 장로들의 요구보다 1만 불이 많은 2만 불’을 모금할 수 있었다. 이때 동석기는 너무나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워싱턴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동안 모금한 ‘한국 선교사 파송 기금 2만 불’을 송금(送金)을 통해 기탁(寄託)하면서 선교사 파송을 재차 요청하였다. [김세복, 『교회사』, 56.]

워싱턴교회 장로들은 동석기의 열정에 고무되어 즉시 장로회를 소집하여 상의한 후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다. 먼저 ‘선교 타당성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선교 타당성 조사위원’들은 조지 거가너스(George Gurganus) 외 4명으로 콜스캠 빌, 프랭크 테일러, 조이 케논, 그리고 버턴 커프멘 등이다. 이들은 1953년 7월 6·25전쟁의 휴전협정이 있었던 직후에 내한하여 한국선교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위원들의 귀국 보고 내용을 검토한 워싱턴교회 장로들은 1954년 1월 드디어 선교사 파송을 결의하였다. [김세복, 『교회사』, 56.] 이 결의는 미국인 선교사에 의한 체계적인 한

국선교를 시작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1954년 5월 우여곡절 끝에 ‘워싱턴교회 선교위원회’는 미국인 최초 한국 선교사로 ‘데일 리치슨(Dale Richeson)’을 파송하므로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되었다. 이어 리치슨은 그의 가족과 함께 5월 10일(월) 김포공항을 통해 서울에 도착하였다. [김세복, 『교회사』, 56.] 여기서 리치슨이 내한한 날은 워싱턴 그리스도의 교회와 미국 선교사에 의해 한국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웨이버리-벨몬트 그리스도의 교회와 동석기 선교사에 의해 주도(主導)된 한국선교가 미국인 선교사에 의한 선교체제로 변경되어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전환점(轉換點)이기도 하다.



리치슨 선교사(B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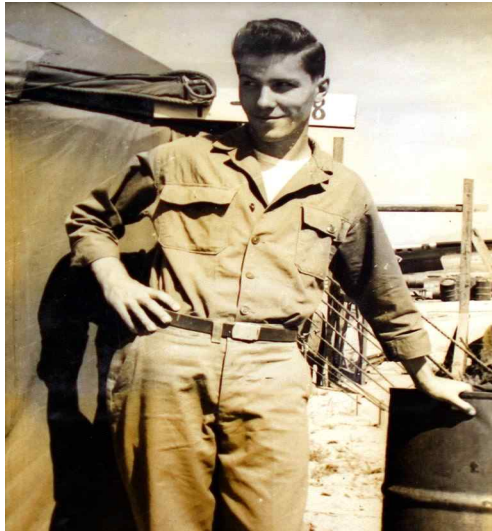
리치슨 선교사는 먼저 용산구 효창동 6번지[현 용산구 효창원로 160]에 선교사 두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적산 가옥(敵産家屋) 한 채를 마련하여 정착하였다. 다음으로 리치슨은 그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적산 가옥의 점유(占有)지 1,779평(5,880.99174m²)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매입하였다. 그리고 그곳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부(Korea Church of Christ mission compound)’로 명명하였다. [이지호, 『초기 한국선교 이야기』; 김세복, 『교회사』, 56.]

리치슨 선교사는 전도자 출신이 아닌 신문기자 출신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관습 등을 미리 살펴보고 언어를 습득한 후 내한하였다. 그는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불어)로 출강하기도 하였으며,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러 교파형 교회 선교사들과도 교제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선교정책과 사업 등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하여 좋은 점은 자신의 선교사역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김세복, 『교회사』, 56~57.]

리치슨 선교사는 형제교회인 Christian Church와는 매우 긴밀히 교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 강론초청을 받으면 주저 없이 초청에 응하여 그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리치슨의 개방적인 활동에 이홍식, 동충모 전도자는 거부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급기야 그들은 회의를 소집하여 한국 전도자들과 리치슨이 참석한 자리에서 ‘리치슨의 선교 활동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김세복, 『교회사』, 57.]

‘리치슨의 선교 활동에 대한 대책협의회’에서 한국 전도자들은 리치슨에게 두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먼저는 교파형 교회의 선교사나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Christian Church의 선교사나 목사들과도 앞으로는 교제를 중단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음으로는 Christian Church에서 말씀 강론 초청이 오더라도 거절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오직 Church of Christ만을 위한 선교사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김세복, 『교회사』, 57.]



빌 램지(BCC)

이때 리치슨은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수용하겠다.’라고 하므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었다. 그런데 주한

미 공군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빌 램지[William Ramsey, 1961년 3월 30일 선교사로 내한]가 한국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리치슨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였다.

“리치슨 형제, 부산에서 동석기 전도자의 영향을 입고 환원한 장성만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가 Christian Church에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내서 장 형제를 찾아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빌 램지의 부탁을 받은 리치슨 선교사는 아무런 생각 없이 형제의 부탁을 들어주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장성만 목사를 찾기 위하여 Christian Church의 목사들을 만났다. 그는 필운동교회 성낙소 목사와 서대문교회 정희건 목사[Christian Church로 이적 전] 등을 비롯하여 여러 목사를 찾아다니며 장성만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런데 리치슨이 Christian Church 목사들을 만나게 된 일이 램지의 부탁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해한 한국 전도자들은 몹시 불쾌하게 여기면서 다시 문제 삼기 시작했다. [김세복, 『교회사』,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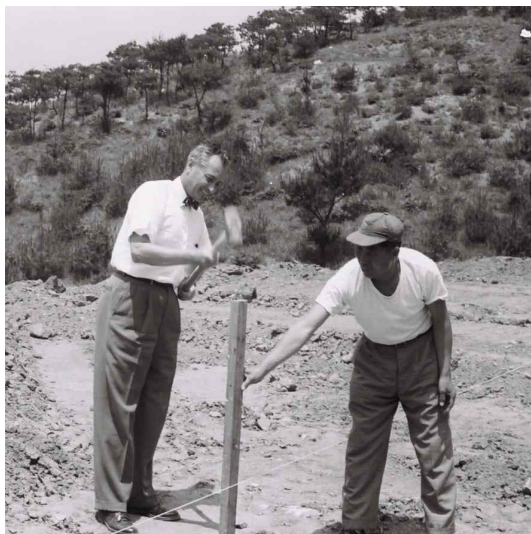
결국, 한국 전도자들은 리치슨을 배제(排除)한 가운데 ‘리치슨의 Christian Church 목사들을 만난 일에 대한 대책모임’을 갖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 모임에서 한국 전도자들은 미국에 있는 동석기 전도자와 워싱턴교회 장로회 앞으로 편

지를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당시 한국 전도자들이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署名), 날인(捺印)까지 하여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담겨있었다.

“첫째, 리치슨 형제는 내한 1년 동안 선교사로서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선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리치슨 형제는 Christian Church뿐만 아니라 교파형 교회와도 교류를 갖고 그들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셋째, 리치슨 형제는 한국교회 전도자들에게 매우 비협조적입니다.” [김세복, 『교회사』, 57.]

이때 최수열[Lewis Haskell Chesshir, 1916.4.24.~2003.7.22.] 전도자가 1954년 9월 어느 날 워싱턴교회를 방문하여 장로들을 만나서 워싱턴교회를 찾아오게 된 용건을 밝히면서 자신을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 간청(懇請)하였다. [기준서(2016.), 『설립에 관한 역사적 진실』, 환원역사연구소, 3.]

“장로님들, 제가 얼마 전에 동석기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와 대화 중에 저는 한국의 참혹한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으며, 그의 권면으로 한국선교를 결심하기에 이르렀고, 그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파송할 선교사를 찾고 있다면 저를 파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선교사(왼쪽)(BCC)

최수열 전도자의 선교 열정에 공감한 워싱턴교회 장로회는 1954년 10월 두 번째 한국 선교사로 그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임명하였다. 이어 그는 10월 15일(금) 가족과 함께 출발하여 일본을 거쳐 11월 29일(월) 내한하여 리치슨 선교사 가족이 사는 곳의 동쪽 가옥에 입주하면서부터 한국선교사역에 합류하였다. [기준서, 『설립에 관한 역사적 진실』, 3.] 그런데 최수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교회 장로회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김세복, 『교회사』, 56, 57.]

“장로님들, 나는 한국에 잘 도착하여 선교사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앞으로 한국에 선교비를 보내주실 때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제 앞으로 보내주실 수는 없는지요? 장로회에서 의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대 선교사 환영식(1954.11. 내수동교회),
앞줄(좌) 동석기, 리치슨 부부, 최수열 부부, 성낙소(유)

한국교회 전도자들과 최수열 선교사의 편지를 받은 워싱턴교회 장로들은 한국의 선교 현장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직감(直感)하고 장로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들은 고심 끝에 리치슨 선교사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리치슨의 의중(意中)을 물었다.

“리치슨 형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교회 전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하여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둘째, 모든 선교비를 최수열 형

제 명의로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세복, 『교회사』, 57.]

워싱턴교회 장로들의 편지를 읽은 리치슨 선교사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받은 큰 상처로 인해 기도하며 몹시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당시 리치슨은 한국교회 전도자들과의 갈등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또 동료 선교사와 선교비 수령(受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므로 “이대로 한국에서 사역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미치자 마음이 너무 아팠다. 결국, 그는 한국선교의 꿈을 접고 한국을 떠나는 것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와 자신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결심을 하고 말았다. [김세복, 『교회사』,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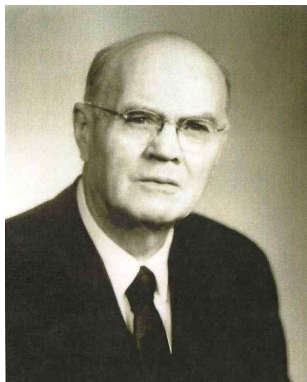
리치슨 선교사는 한국 전도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귀국 결심을 알렸다. 그리고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응어리 보따리를 풀어 얘기를 꺼내면서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리치슨의 얘기를 다 듣고 난 한국 전도자들은 성급한 판단으로 오해를 한 일과 좁은 소견으로 포용이 부족했던 점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귀국을 만류해 보았지만, 워낙 결심이 강하기에 더 만류하지 못하였다. 다만 귀국 후 시간이 흘러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선교사로 내한해 주기를 요청할 뿐이었다. [김세복, 『교

회사』, 57.]

결국, 리치슨 선교사는 한국 전도자들의 요청을 뿌리친 채 내한 2년 만인 1956년 6월 10일(주일) 한국선교의 꿈을 접고 결심한 대로 하와이(Hawaii)로 영구 귀국하고 말았다. [기준서(2018.), 「한국선교 65년사」, 『참빛』 통권 370(제49권 6호), 31.] 이렇게 최초 미국인 선교사는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가슴에 안고 한국을 떠나는 오점(汚點)을 남겼다. [김세복, 『교회사』, 57.] 이 오점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에도 두고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어 미국인 최초 선교사 리치슨은 한국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한국의 선교현장을 떠나면서 최수열 선교사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였다.

이렇게 리치슨 선교사가 떠나고 최수열이 홀로 한국선교의 기반을 잘 조성하고 있던 어느 날 1957년 초 워싱턴교회 장로회는 리치슨의 후임으로 워싱턴교회 담임 전도자인 홀튼[Arthur R. Holton, 1891.7.18.~1964.8.6.]을 세 번째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하였다. 당시 워싱턴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장로들이 홀튼 선교사에게 준 임무는 ‘한국 선교지에 대한 곳곳의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심층적인 조사와 더불어 동양 선교의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홀튼은 1957년 4월 11일(목) 가족과 비서인 멜바(Melba Carlon) 자매를 대동하고 내한하였으며, 리치슨 선교사 가족이 살고 있던 가옥에 짐을 풀고 한국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지호, 「초기 한국선교 이야기」; 김세복, 『교회사』,

61.]



홀튼 선교사와 홀튼 부인(이지호 박사)